

언어자원과 언어능력의 재구성:

싱가포르 한국 조기유학생들과 동반 가족의 사례*

강윤희**

1. 서론

1997년 한국 경제 위기 이후 “세계화 하지 않으면 망한다”(globalize or perish)(Kim 2000: 2)라는 한국 사회 전반의 위기의식이 형성되었다. 특히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세계화 추진 정책은 영어 능력의 습득을 통해서만 세계화된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담론을 널리 통용시키기에 따른 ‘영어 열풍’ 또는 ‘영어 광풍’이라고 불리는 영어 교육 과열 현상을 초래했다(박휴용 2006; Shim and Park 2008). 1990년대 후반에 급증하는 한국 학생들의 조기 유학의 현상도 이와 같은 한국사회의 ‘위기 의식’이라는 맥락 하에 이해해 볼 수 있다. 한국을 떠나 다른 영어권 나라(미국, 캐나다, 호주 등)로 조기유학을 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 이 연구는 싱가포르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의 지원(2008-2011)과 서울대학교 신임교수 연구정착금으로 지원되는 연구비(2011-2012)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부교수

하나가 바로 영어의 습득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조은 2004; 조혜영 2005), 조기유학은 ‘영어’로 대표되는 언어자본 또는 문화자본의 획득을 통해 자신의 자녀들을 세계화 시키려는 중상층 가족의 위기 대처 전략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다른 사례로는 Waters 2005, 2006 참조). 많은 다른 연구에서도 이미 지적되었듯이, 이러한 조기 유학은 ‘세계인’ 또는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해서 영어 능력은 필수라는 한국 사회의 지배적인 담론에 의해 정당화되기도 한다(Kang and Abelman 2011; Park and Lo 2012; Song 2010).

이와 같은 배경 하에 이 논문은 조기유학을 목적으로 싱가포르로 이주한 한국 조기유학생과 그 동반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이주 과정을 통해 새롭게 형성하거나 재조정해 나가는 다양한 언어자원에 대한 평가와 가치, 즉 언어이데올로기를 살핀다. 여기서 출발점이 되는 것은 ‘영어’ 또는 ‘중국어’ 등의 언어자원은 사회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진공 상태에 위치하는 ‘추상적인 언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공간에서 특정의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새롭게 인식되고 재정의되는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것이다(Blommaert 2003). 따라서 이 논문은 언어이데올로기 — 특정 언어와 그 사용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및 가치, 평가(Schieffelin, Woolard and Kroskrity 1998) — 의 개념을 이용하여, 싱가포르 내 한국 조기유학생들과 그의 동반 가족이 어떻게 초국가적인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언어이데올로기를 구성하는지, 나아가 이러한 언어이데올로기가 한국 학생들의 언어 사회화 과정, 특히 외국어 습득 과정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피려고 한다.

세계화가 급속해지는 오늘날, 언어는 단순히 민족 또는 국가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민족어, 국가어의 개념을 벗어나, 언어 자체로 상품화되거나 경제적 자원으로 기능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Heller 1999a, b, 2003). 예를 들어, 세계화된 시장 경제는 국경을 자유로이 넘나들며 더욱 국제화된 세계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다중 언어 사용자들을 장려하

며(Heller 1999a), 특히 영어와 같은 국제어는 언어 상품 시장에서 더욱 높은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Block and Cameron 2002). 한국 사회의 경우 이러한 국제어로서의 영어의 상품화 과정은 더욱 두드러진다. 영어의 습득은 사회 이동성의 가능성과 계급 정체성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었으며(Park and Ablemann 2004), 따라서 한국 언어 시장에서 영어 교육은 가장 중요한 상품 중 하나가 되었다(박휴용 2006). 다시 말해, ‘세계인’ 또는 ‘글로벌 인재’라는 명칭으로 제시되는 국제화 시대의 이상적인 인재상은 언제나 뛰어난 ‘영어 능력’을 갖추어야만 하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었고, 이를 위해 “조기 유학은 필수”라는 지배적인 사회 담론을 만들기도 하였다(Kang and Abelmann 2011).

하지만 보다 최근에 들어서, 이러한 “세계인과 영어 능력의 등치”라는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는 보다 다원화된 교육 이주의 양상에 따른 대체적 담론의 등장으로 도전받고 있다. 특히 지난 7-8년간 급증한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로의 조기 유학은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가 중요한 언어자본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음을 보여 준다(김익기 2006; 홍석준 · 성정현 2009; Kang 2012a; Park and Bae 2009). 또한 보다 다원화된 조기 유학을 통해 한국 이주민들은 다양한 지역에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언어자원과 언어 사용 능력에 대한 인식과 가치를 끊임없이 재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의 경우, 싱글리쉬(Singlish)라고 일컬어지는 싱가포르에서 사용되는 영어의 지역 변이어가 한국 학생들 사이에서는 싱가포르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사용될 수 있는 일종의 상황 변이어(register)로 인식되기도 하고((Park and Bae 2009; Kang 2012a), 나아가 다양한 언어 또는 변이어 간의 코드 전환 능력은 ‘아시아적 세계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의사소통 능력으로 여겨지기도 한다(Kang 2012a). 이처럼 재정의되고 재조정된 다양한 언어자원과 언어능력에 대한 가치와 평가는 다시 이들 한국 조기 유학 가족의 언어

교육 투자의 측면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한다(Bae 2012). 즉 어떠한 언어 자원이 더욱 가치 있다고 평가되는지, 또 어느 정도의 언어능력을 목표로 하는지에 따라서, 언어 교육에 대한 투자를 전략적으로 계획하고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존 연구를 토대로 본 논문은 싱가포르로 조기유학을 간 한국 유학생과 그 동반 가족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싱가포르에서 사용되는 언어자원(중국어, 영어, 싱가포르식)¹⁾에 대한 다양한 가치와 이데올로기를 살필 것이다. 이를 통하여, 한국 조기유학생들이 습득하려는 언어자원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피고, 나아가 각각의 언어자원에 대하여 어떻게 차별화된 언어능력의 정도와 습득 과정을 분류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예를 들어, 특정 언어능력의 습득을 모두 ‘체화된 자본’(embodied capital)으로 보는 많은 선행 연구와는 달리 (Bourdieu 1986; Chew 2009), 한국의 조기유학생들의 경우에는 싱가포르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언어 목록 중에 특히 ‘체화되지 않은’(disembodied), 따라서 의식적 사용이 더욱 강조되는 언어자원이 있음을 보임으로써, 이들이 가지고 있는 보다 상황적으로 세분화된 언어자원의 개념을 논의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들의 언어능력에 대한 개념도 관념적으로 세분화되어 재구성됨을 살필 것이다. 예를 들어, 이들 한국 조기유학생들과 가족들이 추구하는 다중 언어 사용 능력이란 각 언어에 대하여 ‘완벽한’ 또는 원어민 수준의 언어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일종의 ‘생략된 언어능력’(truncated competence)(Blommaert, Collins and Slembrouck 2005)이다. 즉 싱가포르의 한국 조기유학생들이 추구하는 언어 사용 능력이란 “어떤 특정 활동 또는 영역에 따라서

1) Bae(2012)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싱가포르 조기유학생들에게 한국어도 중요한 언어 자원 중의 하나가 되지만, 이 논문에서 주로 다루는 연구 대상자들, 특히 2-3년 정도의 단기 유학생들에게 한국어는 그다지 의식적으로 습득하거나 유지해야 할 언어자원으로 다루어 지지 않았기에, 이 논문에서는 중국어와 영어(싱글리쉬)에 집중하도록 하겠다.

국소적으로 조직되는 언어능력”(Blommaert et al. 2005: 199)으로 재조정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언어자원과 언어능력의 개념에 대한 기존의 무비판적이고 비차별적인 입장을 비판하고, 한국 조기유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자원과 언어능력에 대한 인식은 그 맥락과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유동적인 것임을 보이려고 한다. 또한 이러한 유동적인 언어자원과 언어능력에 대한 인식은 이들의 언어이데올로기—각 언어자원과 그 사용에 대한 태도와 평가—에 의해 매개됨을 지적할 것이다.

나아가 이처럼 차별화되고 다양한 언어자원의 종류와 언어능력의 정도가 나타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한국 교육 이주민들이 갖는 싱가포르 조기유학에 대한 공간적, 시간적 특수성에 대한 인식이다. 즉 싱가포르로 이주한 한국 조기유학생들과 그 부모들은 그들이 상상하는 미래의 궤적에 따라서 싱가포르에서 습득하고자하는 언어자원과 언어능력에 대한 생각을 재구성하고, 이에 따라 언어 습득의 전략을 세운다. 이러한 싱가포르 교육이주의 공간적, 시간적 특수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례가 바로 이들의 ‘감정자본’(emotional capital) (Zembylas 2007)에 대한 강조이다. 즉 공간적인 특수성으로는 외국이지만 여전히 아시아권인 싱가포르에서의 교육이 외국어 습득을 방해한다고 여겨지는 감정적 필터(affective filter)(Krashen 1982)를 낮출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비교적 어린 나이라는 시간적 특수성 때문에 미래의 학습에 기본이 되는 ‘공부하는 태도’를 체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싱가포르 유학의 시간적 공간적 특수성에 대한 인식에 따른 감정자본의 강조는, 동시에 싱가포르를 조기유학지로 선택한 이유를 정당화하는 논리의 하나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싱가포르 내의 한국 조기유학 가족이 추구하는 또 다른 차원의 자원인 감정자본에 주목하여, 이러한 감정자본이 어떻게 이들의 언어 습득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인식되는지 살펴 볼

것이다.

2. 민족지적 배경과 연구 방법

최근 들어 한국 학생들이 조기유학지로 선택하는 국가가 더욱 다양해졌으며, 특히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등 동남아 지역이 더욱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홍석준·성정현 2009, 2013; Kim 2010 참고). 지난 7-8년간 싱가포르로 조기 유학을 가는 한국의 유학생의 수는 급증하여, 2005년에는 1500명에 불과하던 싱가포르 내 한국 초등학교생과 중고등학교생의 숫자는 2008년에는 6500명에 이르게 되었다.²⁾ 2008년 후반기 이후 원화 가치의 하락으로 많은 학생이 한국으로 돌아갔다고 보고되었지만, 2009년 초 약 3500명의 한국 조기유학생이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것으로 비공식 집계되었다.³⁾ 이후 한국의 경제 불황 등의 이유로 조기 유학생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고 하더라도, 싱가포르는 최근까지 꾸준히 한국 조기유학생들의 주목을 받아 왔다.⁴⁾

이 논문의 자료는 싱가포르로 유학을 온 한국 조기유학생들의 숫자가 한참 급증하던 지난 2008년 8월부터 2010년 11월까지의 싱가포르에서의 현지 조사와 2011년 8월과 2012년 1월의 추가 조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연구 방법은 주로 만 18살 이하의 초중고 학생들과 그들의

2) 이러한 증가는 싱가포르를 교육중심지로 선전하는 싱가포르 정부의 마케팅에서 기인하였다. 특히 2003년 이후 싱가포르의 관광청이 서울에 진출하여, 자국의 교육 시스템을 홍보하는 데에 주력하였고, 그 결과 현재 한국은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과 함께 싱가포르 교육시장에 가장 많은 유학생을 공급하는 주요 6대국 중의 하나가 되었다(Channel News Asia 2008년 2월 11일자).

3) The Straits Times 2009년 3월 17일자.

4) 싱가포르의 조기유학생들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한국교육개발원의 2012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국외에 있는 초중고 유학생의 수가 2009년에 비해 약 8.8%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싱가포르에 있는 조기유학생들의 수도 비슷한 비율로 감소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겠다.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534

동반 가족(소위 ‘기러기 엄마’)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제보자 선정은 대부분 연구자의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을 통하여 이루어 졌으며, 2013년 현재까지 모두 66명의 초중고 학생들과 72명의 동반 가족(62명의 어머니, 8명의 아버지, 2명의 할머니)등 총 138명의 조기유학생들과 그 가족들을 인터뷰 하였다. 특히 학생들의 인터뷰의 경우에는 대부분 두 명 이상의 그룹 인터뷰로 진행하여, 학생들 간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유도하였다. 모든 인터뷰는 한국어로 진행되고, 녹음되었으며, 녹음된 인터뷰는 모두 전사 채록하여 분석하였다. 인터뷰 이외에도 총 133명의 학부모와 학생에게서 싱가포르 유학의 동기와 중국어, 영어, 싱글리쉬에 대한 언어태도를 묻는 간단한 설문지 조사를 행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자발적인 창작물들(즉, 연구자에 의해 요청되지 않은)인 일기와 글, 그림들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그 밖에 싱가포르 한국학교, 한국유치원에서의 토요 한글학교, 한국 교민들을 중심으로 한 한국 교회에서의 공식, 비공식 행사, 한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강좌나 이들의 놀이에서의 참여관찰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논문의 인터뷰 대상인 대부분의 조기유학생들은 어머니와 함께 2005년에서 2009년 사이에 싱가포르로 이주해 왔으며, 이 중 몇몇은 동반 가족 없이 다른 한국 가정에 ‘홈스테이’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가족은 생활비로 한 달에 300만 원 이상씩 한국에서 송금을 받고 있었으며, 많은 수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이주해 왔지만, 부산, 춘천, 제주 등 지방에서 유학 온 경우도 상당수에 이르렀다. 한편, 많은 한국 부모들은 싱가포르에서의 조기유학을 ‘2년 프로젝트’라고 부르며, “이삼 이삼 유학” 즉 “초등학교 2-3학년 때 유학을 와서, 2-3년 만에 마친다”는 나름의 공식을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 유학 시기와 기간에 대한 결정은 유학을 나온 학생들의 나이와 가족의 경제력, 학생들의 싱가포르 적응 정도 또

는 학업 성취도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다른 사례로는 Kim 2010 참조). 인터뷰에 응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중국어 습득과 저렴한 학비 등을 이유로 싱가포르 공립학교를 선택하였으며, 비교적 늦은 시기에 유학을 온 몇몇 고등학생들과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학생들 중의 일부는 학비가 비싼 국제학교(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의 싱가포르 내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한편, 본 연구는 학부모와 학생들을 모두 인터뷰함으로써, 이들 세대 간에 상이하게 나타나는 언어태도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다.

3. 언어이데올로기와 언어자원의 재구성

1) 잠재적 도구로서의 중국어

싱가포르로 유학을 가는 한국 학생의 수가 급증한 주된 이유는 싱가포르의 다중 언어 사용, 특히 중국어의 사용 때문인 것으로 인식된다. 싱가포르는 중국, 말레이, 인도계의 다민족 국가로서, 그 공식 언어로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와 함께, 영어를 채택하고 있다(Bokhorst-Heng 2005). 싱가포르 정부의 강력한 이중 언어 장려 정책으로 대부분의 싱가포르 국민들은 영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동시에, 중국어(만다린), 말레이어, 타밀어 등의 모국어를 배우며 사용하고 있다.⁵⁾ 이처럼 중국어와 영어가 모두 공식 언어로 선택되어 사용될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국민 중 75% 이상이 중국계이기 때문에, 중국어는 영어와 함께

5) 하지만 각 민족의 언어라고 상정되는 만다린, 말레이어, 타밀어 등은 싱가포르 정부가 각 민족의 통합에 대한 상징적인 효과를 위해 이데올로기적으로 구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Wee(2006)는 싱가포르의 중국계 국민들은 중국어의 다양한 방언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다양성을 무시하고, 만다린을 전체 중국계의 모국어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언어의 다양성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삭제(erasure)의 측면을 지적한다.

싱가포르의 중요한 언어자원을 이룬다.

이러한 이중 언어 정책에 따라 영어와 중국어의 동시 습득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는 많은 한국 유학원에서 싱가포르로의 조기유학을 선전하면서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측면이며, 실제로 많은 학부모들과 학생들과의 인터뷰 결과, 영어와 중국어의 동시 습득이 싱가포르로의 조기 유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 중의 하나로 나타난다. 이제 영어만으로는 자신을 차별화 할 수 없고, 또 다른 언어자원인 중국어를 습득해야 한다는 일종의 위기의식이 이들을 싱가포르로 향하게 하는 중요한 동기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인터뷰 당시 12살이었던 서영이의 말이다.⁶⁾

영어는 모든 공부의 베이직(basic)이고, 그다음에 이 세상이 너무 나빠져가고 모든 아주 강아지까지 다 영어를 할 수 있으니까 영어만 잘하면 소용이 없으니까 중국어를 해야지 그나마 아웃스탠딩(outstanding)이 되니까 중국어를 꼭 배워야 해요.

이처럼 중국어의 습득이 싱가포르로의 조기유학을 결정하는 중요한 동기 중 하나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의 한국 유학생들은 유학 후 중국어 보다는 영어의 습득에 주력하게 된다. 예를 들어, 위에서 서영이가 “영어는 모든 공부의 베이직”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싱가포르에 이주한 대부분의 조기유학생들과 그 학부모들은 “영어는 기본”이라는 답론에 동의한다. 서영이가 말했듯이 영어는 이제 “강아지까지 할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배워야 하는 언어자원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 영어와 중국어 중 어떤 언어가 더 중요하냐고 묻는 설문지의 질문에, 총 133명의 응답자 중 ‘영어와 중국어가 똑 같이 중요하다’고 대답한 단 한 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32명의 응답자가 모두 ‘영어가

6) 이 연구에 참여한 모든 참가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논문에서 사용되는 모든 제보자의 이름은 가명임을 밝힌다.

더 중요하다'라는 답을 선택하였다.

이와 같이 싱가포르 내의 조기유학이라는 맥락 내에서도 영어는 가장 중요한 언어자원으로 규정되고, 따라서 중국어는 다른 한국 학생들과의 차별화를 위한 것이지만, 영어보다는 하위에 위치한 부차적인 언어자원으로 규정된다. 또한 중국어의 습득이라는 동기는 대부분 이들 유학생과 그 가족들이 전망하는 중국의 거대 시장으로의 급성장에 따른 중국어의 경제적 유용성에 대한 기대에서 기인한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어는 종종 미래의 언어로, 경제적 도구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규정되기도 한다(Kang 2012a). 다음 16살 영준의 인터뷰 중 발췌에서 그러한 '미래의 언어' 또는 '도구적 언어'로서의 중국어에 대한 인식이 잘 나타난다.

이제 일단 영어는 이제 전 세계에서 쓰다 보니까 영어는 이제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건데, 중국어는 이제 보면 이제, 어... 10년인가 20년 뒤엔 이제 중국이 중국어가 영어처럼 중요한 게 되잖아요. 그래도 지금 모든 나라 보면 다 차이나타운은 있는데, 잉글리쉬타운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어가 이제 나중에 커서 뭐 무역 같은 것도 하면 필요하고 하니까.

이처럼 중국어는 영어와 비교했을 때, 부차적인 언어로, 또는 잠재적인 도구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되며, 이러한 언어이데올로기에 따라 한국 조기유학생들과 가족들은 중국어의 학습을 위한 시간적, 경제적 투자를 최소화하게 된다. 예를 들어, TV의 중국어 채널, 만화, 책등을 통하여, 일단 중국어가 "편하게" 느껴지게끔 하는 학습 전략이 그것이다. 많은 조기유학 가족들이 자녀들의 중국어 학습에 있어서는 완벽한 중국어 사용 능력의 습득 보다는 "중국어 환경에의 노출"이라는 소극적인 학습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당시 싱가포르로 이주한지 약 2개월 되던 한 어머니와의 인터뷰 중 발췌이다.

사실 근데 그게[중국어 잘 쓰고 읽는 것] 중요한 게 아니고 말하는 것, 일단 듣는 거 이런 게 좀 편하게 되었음 좋겠는데 그건 제가 절대 시켜줄 수 없는 방법이고 이제 한국에서도 그런 [TV]채널을 찾았어요. 중국 채널을 찾았는데 그런 채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싱가포르에 오면 그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 당연히 있겠죠. 중국 만화하고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걸로 접해줘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왔어요.

이밖에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는 비교적 학비가 싼 싱가포르의 공립학교에 보내거나, 중국어를 일상적으로 하는 현지 친구들과 “놀이면서 자연스럽게 배워” 중국어를 익숙하게 하는 것이 대다수의 한국 학부모가 취하는 전략이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자신들의 자녀가 이러한 중국어에의 노출을 통해 흥미를 느끼게 되면, 나중에 심화해서 배우게 되더라도 중국어 학습이 훨씬 쉬울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즉 이들 한국 가족들이 싱가포르로의 교육 이주를 통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완벽한” 중국어 구사 능력이 아니라, 단지 그 “씨를 심는 것” 또는 나중에 사용하게 될 어떤 잠재적인 언어능력을 마련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많은 학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싱가포르의 경험을 통해서 중국어에 흥미를 갖게 된다면, 이후에 중국어를 더 가르칠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었다.

2) 발음이나, 지식이나: 영어에 대한 세분화된 인식

앞서도 밝혔듯이, 대부분의 한국 학생과 학부모들은 영어가 ‘기본’이며, 중국어는 하나의 부차적인 자원/도구라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싱가포르의 유학은 다른 영어권 국가로의 유학과 마찬가지로 영어습득이 가장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가 된다. 하지만, 캐나다, 미국, 호주 등의 서구 영어권 국가로 유학을 간 경우와는 달리, 싱가포르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화자는 소위 ‘월어민’이 아닌 다중언어 사용자이기 때문

에, 싱가포르에서 사용되는 영어에 대해서는 그 고유성과 권위성이 언
제나 의문시 된다. 실제로, 싱가포르로 유학을 온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경우, 그 기대와 실제의 차이에 따라 많은 갈등을 겪게 된다. 특히 싱가포르
내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싱글리쉬’(Singlish)라고 불리는 싱가포르
식 영어는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 끊임없이 토론되는 중요한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싱글리쉬는 싱가포르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중국식 문법과 발음,
말레이어의 차용 등 문법, 어휘, 발음 등에서 소위 ‘표준’ 영어와는 구분
되는 지역 방언이라고 할 수 있다(Bokhorst-Heng 2005). 한국 유학생
들과 학부모들은 이러한 싱글리쉬에 대해 다양한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평가는 대부분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나뉜다. 예를 들
어, 학부모들은 싱글리쉬를 이야기 할 때, 주로 ‘발음’에 대해서만 이야
기 하면서, ‘발음이 너무 세다’, ‘촌스럽다’ 등의 평가를 내린다. 한편
학생들의 경우에는 싱글리쉬가 단순히 ‘발음’만의 문제가 아닌, 문법,
어휘, 억양의 측면에서 구별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한편, 동시에 학부모들은 싱글리쉬를 ‘발음’의 문제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문법적인 지식이나, 읽고 쓰는 능력(literacy)에 있
어서는 싱가포르에서 영어를 배웠다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
는 경향이 있다. 오히려 미국이나 캐나다로 유학을 가는 다른 조기유학
생들을 비판하면서, 그 사람들은 ‘지식 보다는 허세’를 좇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인터뷰 중 많은 학부모들이 싱가포르를
유학지로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미국으로 유학 간 발음만 좋은
아이”와 “싱가포르에서 공부한 실력 있는 아이”를 구분하기도 했다. 일
례로 싱가포르 주재 한국인들이 자주 찾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싱글리
쉬 발음이나 지식이나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제목으로 “영어 발음 좋고
머리에 든 게 많으면 금상첨화, 혀는 많이 굴리는데 머리에 든 게 없으
면 별 볼일 없고”⁷⁾라는 글이 게시되었는데, 이러한 게시물은 싱가포르

주재 한인들이 가지고 있는(표준)영어과 싱글리쉬를 구분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기준인 ‘발음’의 문제와, 동시에 싱글리쉬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식’의 측면에서는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자부심을 보여준다. 인터뷰 당시 남매를 각각 국제학교, 공립학교를 보내던 한 어머니는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다.

오빠가 국제학교 다니고, 동생은 로컬[공립] 보내거든요. 그래서 동생이 영어를 하면, 저 오빠가 듣기에는, “너, 싱가포르인이 말하는 영어 같다.” 그러니까 결국 그건 싱글리쉬다, 이렇게 애길 하는 건데. 그럼 제가 그래요. “싱가폴 애들이 너네 학교 애들보다 훨씬 시험 성적은 좋을 거다” 그래요. 국제학교는 너무 아이들을 풀어 주지만, 로컬은 정말 빠르게 시키거든요. 그러니 [국제학교 애들은 발음만 굴리지, 실력은 로컬 애들이 훨씬 좋은 걸요.

이처럼 영어의 ‘지식’에 대한 강조는 학부모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인 ‘시험 성적’으로 가시화 되며, 이러한 시험 성적에 대한 강조는 학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시험을 위한 영어’라는 영어에 대한 도구적 이데올로기를 잘 보여준다. 특히 이러한 ‘시험을 위한 영어’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습득했는가는 철저히 경제적인 법칙에 의해 설명이 된다. 즉 조기 유학의 비용과 시간에 대비하여 자녀의 등급이 얼마나 올랐는가가 많은 학부모들의 관심인 것이다. 다음은 2009년 당시 2년의 싱가포르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 한 사설 학원에서 영어 시험을 보았던 한 어머니의 인터넷 게시물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귀국 두달... 그리고 영어 학원...(2009년 4월 11일 게시물)⁸⁾

-
- 7) “싱글리쉬 발음이나 지식이나 그것이 문제로다”(작성자: 싱가포르맘)(2009년 5월 10일 게시물) http://www.hankookchon.com/bbs/zboard.php?id=qa&page=1&sn1=&divpage=5&sn=off&ss=on&sc=off&keyword=발음&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7420
- 8) 이 사례는 다음 링크의 게시물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http://www.hankookchon.com/bbs/zboard.php?id=lif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keyword=구슬&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693

… 5, 4학년인 큰 애들은 싱가포르에서 같은 학년으로 3학년까지 마치고 왔어서 테스트를 같이 봤는데 작년에 본 토익문제집을 큰 아이는 650점, 작은 아이는 560점 정도, 유치원과 1학년을 마친 막내는 토익브릿지를 테스트해서 129/180점 만점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큰 아이 둘은 미국에서 유학했다는 아이와 중학생들과 6명이 한 그룹으로 제일 상위 레벨에서 수업을 받고, 막내는 그 다음 다음 레벨인 4~5학년들과 수업 받고 있습니다.[후략]

위의 기사물에서 세 자녀는 당시 각각 2, 4, 5학년이었는데, “미국에서 유학했다는 아이” 또는 나이가 훨씬 많은 다른 학생들과 같은 레벨이었다고 적고 있다. 이처럼 “미국에서 유학”했다는 아이들과 비교해서 전혀 뒤쳐지지 않는다는 것은 싱가포르 유학이 비용 대비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시험을 위한 영어’와 대비되는, 조기유학의 또 다른 중요한 목표는 ‘소통을 위한 영어’의 습득이다. 즉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영어”의 습득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많은 조기유학생들이나 그 학부모는 한국에서 배우는 영어는 너무 “문법 위주”로 되어 있어서 실제로 사용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영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외국에서의 조기유학은 이들에게 실제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처음 경험하는 외국 생활에서 ‘소통을 위한 영어’는 생존을 위한 절박한 도구가 되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 아이들의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소통을 위한 영어’의 가치는 동시에 싱가포르의 일상생활을 통해 접하게 되는 싱글리쉬의 사용을 정당화하기도 한다. 특히 싱글리쉬는 “짧고, 간단한”, “쉬운” 영어로 일종의 통용어(lingua franca)로 역할 한다. 이것은 한국에서의 영어-사회 계급과 코스모폴리탄에 대한 열망을 상징하는 지표(Park and Abelmann 2004)로서의 영어에 대한 가치와 대조를 이루며, 싱가포르 내의 한국 교육 이주민들의 ‘실용주의적 가치’에 대한 언어이데올로기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Kang 2012a). 다음은

한 학부모의 인터뷰 중 발췌문이다.

[싱글리쉬를 쓰는건] 그렇게 크게 문제라고 생각 안 해요. 그건 언제든지 교정 가능한 것이고. 그니까 의사 표현이니까, 서로 의사표현이 가능한 거면 뭐 싱글리쉬던 콩글리쉬던 우리가 원어민이 아니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 안되고, 그리고 또 나중에 발음 교정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의사소통의 중요성’과 함께, 싱글리쉬를 ‘발음’의 차원으로 축소하면서, 나중에 ‘교정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생각이다. 앞 서 살펴보았듯이 기본적으로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싱글리쉬를 ‘발음’의 차원에서 보았고, 이러한 ‘발음’의 차원은 ‘실력’ 또는 ‘지식’이라고 표현되는 언어능력과는 구분되는 피상적인 측면이므로 추후에 교정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다음은 당시 5학년 아들과 함께 유학을 왔던 한 어머니의 인터뷰 중 발췌문이다.

한국에 계신 분이랑 얼마 전에 통화를 했는데, 한국에 가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캐나다 뭐 미국 선생님들이니까 한 6개월 정도로 영어 학원 다니면서 또 여기서 이런 것처럼 또 자연스럽게 교정이 되니까 그 부분은 뭐 크게 걱정하진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한 어머니는 싱가포르에서의 2년 반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였는데, 귀국 후 미국 원어민 강사가 운영하는 학원에 자녀들을 약 두 달 정도 보냈더니 “벌써 제법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가 난다”며, 자연스럽게 미국식 발음으로 교정이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학생들의 경우, 싱글리쉬가 좀 더 ‘도구적’인 가치를 부여 받는 상황은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이다. 많은 학생들이 자신이 비공식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표준영어를 구사했을 때 오히려 싱가포르 학생들에게 놀림을 받는 경향을 지적하면서, 싱글리쉬가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친구들과의 우정과 유대감을 상징하는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

다. 즉, 싱글리쉬는 “[싱가포르]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을 때, 애들이랑 장난 칠 때”와 같이 비위계적, 비공식적 상황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언어 자원이 되는 것이다. 특히 공립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싱글리쉬의 사용이 “재미있고, 친근하다”고 평가 한다(Kang 2012a; Park and Bae 2009). 따라서 많은 학생들의 경우 현지 친구들과의 상호 작용에서 싱글리쉬를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은 인터뷰 당시 15살 준형이의 인터뷰 발췌이다.

준형: 그런데, 제 생각에 일단 [현지]애들이랑 친해지려면 싱글리쉬 써야 되니까, 한국 사람들 친해지려면 한국어를 써야 되잖아요. 많이 친해지려면 싱가포르도 똑 같이, 뭐, 개념들 귀에 익숙한 싱글리쉬가 들려야지, 그래서 싱글리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친구 사이 하려면. 원래 제가 처음 왔을 때, 원래 프로퍼 잉글리쉬(proper English)로 얘기를 하는데, 제일 처음에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다 웃는 거예요. 웬지 몰랐는데, 그러다가 이제 점점 싱글리쉬를 배우면서 이제 저는 스위치가 되는 거예요.

연구자: 그럼 싱글리쉬를 더 많이 쓰게 된 거야?

준형: 아뇨, 근데 제 생각에는요, 이제 싱글리쉬가 그렇게 두렵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 왜냐하면 싱가포르 오기 전에 제대로 된 영어를 잘 하는, 발음 잘 하는 사람이 여기 오면 이제 그 스위치가 더 쉽게 되요. 제 동생 보면은, 한국에서 영어 참 별로 잘 못했는데 여기 와서 이제 싱글리쉬만 배우다 보니까 제대로 발음 나는 거 발음 못 하는 거예요. 진짜. 싱가포르 애들처럼 발음하고..

위의 인터뷰 발췌문에서 나타나듯이 싱글리쉬는 현지 친구들과 친근해지기 위해서 비공식적 상황에서 의식적으로 사용되는 상황 변이어(register)가 된다. 여기서 상황 변이어란 사용자 또는 화자에 따른 언어 변이(user-related variation)가 아닌 언어 사용 상황에 따른 언어 변이(use-related variation)를 설명하는 개념으로서, 여기서 상황이란 의사소통의 주제나 영역, 상대방과의 상호 관계 등을 가리킨다(김용진 2012). 준형은 이러한 싱글리쉬의 상황적 사용을 동생의 ‘체화’된 싱글리쉬,

즉 표준 영어 또는 “적절한 영어”(proper English)로의 전환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과 비교하면서 “영어를 잘 하는 사람은 스위치가 더 쉽게 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여기서 준형이가 말한 “싱글리쉬가 두렵다”는 상황은 준형의 동생처럼 싱글리쉬가 체화되어 습관이 된 경우이다. 다시 말해, 더 이상 준형에게는 싱글리쉬가 ‘체화’된, 따라서 교정 불가능한 언어 습관이 아니라, ‘체화되지 않은’, 따라서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구사할 수 있는 다양한 언어자원 중에 하나로 첨가되었음을 뜻한다. 이와 같이, 싱글리쉬는 상대방에게 화자의 친근함과 사회성을 표현하는 스타일 상의 변이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다(Eckert and Rickford 2001).

이처럼 영어라는 언어자원에 대한 인식은 싱가포르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더욱 세분화되어, 더 이상 ‘추상적’인 언어가 아니라, 특정 공간이나 사회관계와 밀접하게 연결되는 ‘공간적’으로 특수화된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즉 싱가포르에서 사용되는 영어는 싱가포르에서는 유용한 언어자원일 수 있지만, 다른 공간에 가면 그 가치는 사라진다는 것이다(Blommaert et al. 2005). 따라서 이러한 언어자원의 공간적 특수성에 대한 인식은 한국 조기유학 가족들의 언어 습득 전략을 매개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싱가포르의 많은 한인 가족들은 자녀들을 싱가포르의 공립학교로 보내는 경우,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온 원어민 선생님을 부터 따로 과외를 받거나, 조기유학을 마친 후 한국으로 돌아가 발음을 교정하는 방법으로 영어 습득을 전략화 한다.

4. 언어능력의 재구성: 제한적/상황적 언어능력

한편, 이러한 언어자원에 대한 ‘공간적’ 재구성과 함께, 싱가포르 내 한국 조기유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갖추어야 할 언어능력에 대해서도 ‘공간적’, ‘시간적’으로 특수하게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비교적 어린 나이에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다는 조기유학생들의 연령적 특수성에 의한 것이기도 하고, 미국, 영국 등의 소위 영어의 내부 원(inner circle)이 아닌 외부 원(outer circle)(Kachru 1986)에서 유학을 하고 있다는 공간적인 특수성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즉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싱가포르에서의 유학은 외국에서 생활하는 첫 걸음이며, 앞으로 “더 큰 사회”로 나아갈 것이라는 미래의 여정을 그리고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말하는 “더 큰 사회”가 어디인가를 정확하게 밝혀내는 것이 아니다. “더 큰 사회”는 미국, 영국 등 서구권 국가가 될 수도 있으며,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일 수도 있다. 오히려 강조해야 할 것은 이들에게 싱가포르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며, 싱가포르 조기유학은 ‘세계인’ 또는 ‘글로벌 인재’라는 수사로 표현되는 자녀들의 목표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초국가적 경험의 시간적 공간적 특수성 때문에, 이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완벽한” 언어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언어능력의 바탕을 이루는 잠재적 능력을 만들어 주는 과정인 것으로 묘사되고는 한다. 다음은 한국에서 영어 학원을 하다가 자녀의 조기유학을 위해 싱가포르로 이주해 온 한 어머니의 인터뷰에서 발췌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무슨 성적을 올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뺨(back) 주머니가, 포텐셜 파워(potential power)가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조금만 부스트(boost) 해가지고, 확 필요할 때 당겨주면, 그 때 확 터져 가지고 안에 있는 게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게 많을 거라는 기대를 하는 거죠. 나중에 만드려고 하면 시간도 없고, 그때 만들어 봤자 그 정도 나오지도 않을 거고 생스럽게 하지 말고, 지금 얘기 때부터 그런 거를 경험 많이 해 갖고 준비를 해 놓으면, 어느 순간에 터지면 1등은 안 해도 편하잖아요. 어디 가서 사는데.

위의 인터뷰에서도 나타나듯이 싱가포르로 조기유학을 온 것은 당장 입시의 부담이 적은 초등학교 시절의 ‘시간적 여유’와 함께, 나이가

어릴수록 언어 습득이 좀 더 빠르고 정확하다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싱가포르의 경험을 통해 얻은 중국어나 영어에 대한 기본적인 감각은 잠재적인 언어능력으로 작용하며, 이러한 것은 이후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언어능력의 기반이 된다고 믿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잠재적, 제한적 언어능력에 대한 강조는 싱글리쉬에 대한 정당화로 이어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어차피 외국에서 꾸준히 살 것 같으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억양’이나 ‘발음’은 교정될 것이라고 믿는 것도 언어자원과 그 능력을 상황적, 시간적으로 재규정하는 측면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상황적인 언어능력의 강조는 사회적 적절성에 따라 언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중요한 언어능력의 하나로 상정하게 한다. 다음은 재싱가포르 한인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싱가포르 공립학교를 다닌 학생들의 영어 실력에 대한 토론 중 한 답글이다.

싱가폴 로컬은 발음 빼면 국제학교보다 더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것 같구요. 발음은 어린아이들 경우 금방 교정되고 ... 커서도 상대에 따라 발음을 조절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싱가폴 엘리트는 영국 사람하고 얘기할 땐 영국발음 하고 미국인하고 얘기할 땐 미국발음 하던데요.9)

따라서 영어 능력, 또는 ‘영어 실력’이라는 것은 언어에 대한 문법적 지식만이 아니라, 특정 상황과 사회적 관계에 따라서 얼마나 적절한 언어를 쓰는가가 더욱 중요해 지는 것이다. 즉 싱가포르 내 한국 교육 이주인들이 추구하는 언어능력은 ‘완벽한’ 언어능력이 아니라, 생략되고 (truncated) 국소적인, 따라서 상황적인 언어능력으로 재구성되며 (Blommaert et al. 2005), 동시에 언어 사용 능력은 ‘사회적으로 적절한

9) “싱가폴 로컬 학교를 다닌 아이들의 영어 실력”(작성자 TJF)(2011년 4월 19일)
http://www.hankookchon.com/bbs/zboard.php?id=qa&page=1&sn1=&divpage=8&sn=0n&ss=on&sc=on&keyword=영어실력&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3683

언어'의 사용 능력으로 확대된다.

5. 언어자원의 촉매: 감정자본

한편, 이렇게 재구성된 언어자원과 언어 사용 능력을 위해서 강조되는 또 다른 차원의 자원은 감정자본(emotional capital)이다. 여기서 감정자본이란 다양한 형태의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자본의 축적을 용이하게 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정서적 측면의 자원들을 의미 한다(Gillies 2006; Kang 2012b; Reay 2000; Zembylas 2007). 많은 사회학적 연구에서 감정자본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계급 재생산을 위해서 할애할 수 있는 감정적인 측면을 일컫는 개념으로 사용되었으나(Reay 2000; Gillies 2006), 이 논문에서는 외국어의 습득과 사용을 용이하게 해준다고 생각되는 화자의 기질, 성향, 감정적 자질과 태도뿐만 아니라, 감정 관리의 능력까지 포함하는 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사용하기로 하겠다(Hochschild 1983; Chin 2000).

여기서 첫 번째로 지적될 수 있는 감정자본은 '인내', '참을성'과 같은 일종의 감정관리의 능력을 포함하여, '끈기', '집중력' 등의 기질이 강조되는 자기 규율적인 측면이다. 이러한 기질과 성향은 시험과 같은 언어능력의 제도화된 평가에서 언어 수행 능력의 바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자질 중의 하나로 여겨지기도 한다. 이러한 '규율'의 측면은 많은 학부모들이 지적하는 서구 영어권 국가가 아닌 싱가포르를 유학지로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로 나타나며, 나아가 싱가포르 내에서도 국제학교가 아닌 공립학교를 선택한 이유가 되기도 한다(Park and Bae forthcoming). 일례로 위에서 소개 되었던 "귀국 두달... 그리고 영어 학원"이라는 제목의 기사물의 후략 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귀국 두달... 그리고 영어 학원...(2009년 4월 11일 게시물)¹⁰⁾
... 학원에선 싱가포르에서 온 아이들이 처음이라 다른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공부한 아이들과 비슷할 줄 알았는데 문제를 푸는 자세나 점수에서 놀라더군요. 막내는 한 시간, 큰 애들은 두 시간을 꼼짝도 않고 앉아서 풀었거든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공립학교를 다닌 아이들은 수업시간과 시험문제 푸는 시간만큼은 집중해서 잘 할 수 있다고 얘기했지요.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위 게시물의 작성자는 자신의 아이들이 ‘미국 유학에서 돌아 온 학생들’과 동등하거나 상위 레벨의 영어 시험 점수를 얻었다고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흥미로운 것은 “문제를 푸는 자세”에 대한 지적이다. 즉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것은 단지 영어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꼼짝도 않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인내심과 끈기, 집중력이 또 다른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위의 “싱가포르에서 공립학교를 다닌 아이들”이라고 표현했듯이 싱가포르의 공교육은 한국과 유사한 시험 위주의 주입식 교육 환경을 제공한다. 따라서 이러한 싱가포르 공립학교에서의 유학 경험을 통해 아이들은 “책상에 꼼짝도 않고 앉아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본 태도와 자세를 배울 수 있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많은 싱가포르 내 한국 교육 이주민들은 보다 자유롭고 창의성을 키우는 외국의 교육 환경을 선호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동시에 엄격한 교육을 통해 자기 통제와 규율의 훈련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Kang 2012b; Park and Bae forthcoming). 이러한 자기 규율의 측면은 (미국이나 캐나다가 아닌) 싱가포르 조기유학을 정당화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한다. 또한 이러한 ‘공부의 태도’와 ‘자세’는 ‘시간적’으로 제한된 자원 중 하나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많은 학부모들은 이러한 태도와 자세는 비교적 어린 나이에 ‘체화’시켜야 할 중요한 기본 학습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10) http://www.hankookchon.com/bbs/zboard.php?id=lif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keyword=구슬&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693

때문이다.

두 번째로 지적되는 감정자본은 ‘자신감’, ‘기’ 등으로 표현되는 화자의 감정적 자질의 측면에서 발견된다. 이것도 역시 시간적으로 특수하게 요구되는 언어능력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많은 학부모들이 싱가포르에서의 언어 습득은 ‘완벽한’ 언어능력의 습득이 아닌 ‘제한적’이고 ‘상황적’인 것으로 재조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들에게 조기 유학의 목표는 ‘영어 울렁증’을 극복하고, ‘쉽게’ 다른 사람과 이야기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다음은 두 딸을 데리고 유학을 온 한 아버지와의 인터뷰 중 발췌로서, 싱가포르 조기유학의 목표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있는 부분이다.

일단 [조기 유학이] 언어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앞으로 살면서 언어가 안 되면 어느 나라에 살든지 사는 것이 너무 국한되니까. 기회 자체가 없으니까. 그리고 여러 사람을 대하면서 좀 나는 애들이 뭐랄까, 당당하게 자라라고 하는데, 조금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디 가면 항상 먼저 시키고 해보라고 하는데. 사실은 언어도 필요 없고, 공부도 필요 없어. 누구든지 만나서 이야기 할 수 있으면 그게 능력이라고 봐요. 그게 최고의 미덕 아닐까 하고 그래서 나도 이제 그런 기회를 자꾸 주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런 데 [싱가포르]가 더 좋을 수 있어요. 키도 크고, 머리 노란 사람들만 있는 데보다, 여기는 다 비슷비슷 하니까.

위의 아버지는 언어능력보다도, “누구든지 만나서 이야기 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딸들이 유학을 통해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한다. 이러한 ‘자신감’과 대인 관계에서의 편안함은 많은 한국 학부모들이 말하고 있는 싱가포르 유학의 장점이기도 하다(Kang forthcoming). 특히 싱가포르가 한국과 같은 아시아권에 있다는 사실은 한국 조기유학생들에게 ‘자신감’을 갖게 하는 중요한 환경을 제공한다고 여겨진다.

이와 더불어, 싱가포르의 다민족, 다문화 국가이며, 대부분의 화자들이 영어를 제2외국어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한국인 이주민들은 “영어를 쓰기가 편안하다”고 이야기 한다. 즉 싱가포르의 다민족 다언어적인 환경은 상대적으로 한국인들의 ‘감정적 필터’를 낮추어서 이들의 외국어 습득을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Krashen 1982). 이러한 감정적인 편안함은 단지 외국어 습득이 아닌 외국어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촉매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15살 영기는 ‘자신감’을 언어능력을 이루는 중요한 자원 중 하나로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그러니까 중국애들 이렇게 저보다 영어 못하는 애들한테 얘기 할 때는 ‘내가 이렇게 단어를 많이 알았나? 내가 이런 문법을 알았나?’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정말 술술 말이 나오는 데요. 또 영어를 잘하는 애들 앞에서는 이게 또 주눅이 들고요.

영기의 이야기에서도 나타나듯이 화자의 언어 수행 능력이란 단순히 화자의 언어능력에만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청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또는 나이가 청자의 영어 사용 수준에 따라서 그 자신감의 정도가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편안함’을 제공하는 싱가포르에서 학생들은 더 많은 ‘연습’의 기회를 얻으며, 이를 통해 미국, 캐나다 등 ‘더 넓은 세계’ 또는 ‘더 도전적인 사회’로 가기 위한 자신감을 축적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자신감을 통해 한국 학생들은 소위 ‘영어 울렁증’ 또는 ‘외국인 공포증’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외국이지만 여전히 동양권인 싱가포르의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중요한 초국가적인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6. 결론

이상으로 싱가포르에서 조기유학을 하고 있는 한국 유학생들과 그 동반 가족들이 싱가포르에서의 이주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언어자원과 언어능력을 새롭게 정의하고 구성하는지 살펴보았다. 우선 잠재적인 경제적 도구로서의 중국어에 대한 가치라든가, 시험과 소통을 위한 영어라는 언어이데올로기는 한국 조기유학 가족들의 구체적인 언어 습득 전략과 언어 교육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싱글리쉬에 대한 문법적 지식과 발음이라는 세분화된 인식에 따라서, ‘체화’되어 습관화된 싱글리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반대로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한 ‘체화되지 않은’ 싱글리쉬의 사용에 대해서는 특정 ‘스타일’을 나타내는 또 다른 언어자원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타난다. 따라서 한국 조기유학 이주민들에게 중국어 또는 영어라는 언어자원은 더 이상 추상적인 언어가 아니라 싱가포르에서의 실제 생활 경험을 통해 그 가치와 의미가 타협되는, 공간적, 상황적으로 특수한 문화적 구성물이며, 그러한 언어자원에 대한 가치와 평가는 특정 상황과 맥락에 따라 유동적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이처럼 공간적, 상황적으로 변화하는 언어이데올로기는 동시에 이들에게 어떤 언어를 어떻게 습득할 것인가를 규정하면서, 이들의 외국어 습득 과정을 매개한다. 특히 싱가포르에서의 조기유학이라는 시간적, 공간적 특성은 이들이 목표로 하는 언어능력을 좀 더 잠재적인 것으로, 나아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한적인 것으로 규정하게 한다. 이와 동시에 ‘끈기’나 ‘인내심’과 같은 자기 규율적 태도, 자신감과 두려움의 극복 등으로 나타나는 감정자본의 획득은 서구의 국가가 아닌 싱가포르에서 조기유학을 하면서 축적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자본의 하나로 인식되기도 한다. 즉, 한국 학생들에게 싱가포르 조기유학은 영어와

중국어의 완전한 습득, 예를 들어, 원어민 수준의 언어구사 능력의 취득이 목표가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 가더라도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의 ‘바탕’이 되는 외국 언어에 대한 ‘기본’ 능력의 습득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초국가적 이동과 유학을 통한 특정 언어 자원의 습득과 그 사용 능력은 이들 교육 이주자들이 위치하고 있는 특별한 시간적, 공간적 궤적에 따라서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재조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논문접수일: 2013년 10월 15일, 논문심사일: 2013년 11월 25일, 게재확정일: 2013년 12월 16일

참고문헌

김용진

2012 “상황 변이어”, 『사회언어학 사전』, 한국사회언어학회, 서울: 소통.

김익기

2006 중국 유학 한국청소년의 규모추정과 적응실태. 연구보고 06-R16. 한국청소년개발원.

박휴용

2006 “‘세계화 시대의 영어 학습’ 열기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사회적 기호와 과정의 탐색”, 『사회언어학』 14(2): 169-196.

성정현 · 홍석준

2013 『그들은 왜 기러기가족을 선택했는가: 말레이시아 조기유학 현장 보고』, 서울: 한울 아카데미.

조은

2004 “세계화의 최첨단에 선 한국 가족: 신 글로벌 모자녀 가족 사례

연구”, 『경제와 사회』 64: 148-171.

조혜영

2005 『청소년의 조기유학 결정과정과 적응, 초국가적 가족관계 형성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 05-R37. 한국청소년개발원.

홍석준 · 성정현

2009 “조기유학 대상지로 동남아시아를 선택하는 한국인 부모들의 동기 및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한 연구: 말레이시아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0(4): 239-262.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Bae, So Hee

2012 “The pursuit of multilingualism in transnational educational migration: Strategies of linguistic investment among Korean joji yuhak families in Singapore,” *Language and Education* 2012: 1-17.

Block, David and Deborah Cameron(eds.).

2002 *Globalization and Language Teaching*, New York: Routledge.

Blommaert, Jan

2003 “Commentary: Sociolinguistics of globalization,” *Journal of Sociolinguistics* 7(4): 607-623.

Blommaert, Jan, James Collins, and Stef Slembrouck

2005 “Spaces of multilingualism,” *Language & Communication* 25(3): 197-216.

Bokhorst-Heng, Wendy

2005 “Debating Singlish,” *Multilingual* 24: 185-209.

Bourdieu, Pierre

1986 “The forms of capital,”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ed. by J. Richardson, pp. 241-248. New York: Greenwood.

Chew, Philies G-L.

2009 “In pursuit of linguistic gold: mothering in a globalized

world,” *English Today* 25(2): 33-39.

Chin, Tiffani

2000 “Sixth grade madness: parental emotion work in the private high school application process,” *Journal of Contemporary Ethnography* 29(2): 124-163

Eckert, Penelope and Rickford, John R. (eds)

2001 *Style and Sociolinguistic Vari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Gillies, Val

2006 “Working class mothers and school life: exploring the role of emotional capital,” *Gender and Education* 18(3): 281-293.

Heller, Monica

1999a *Linguistic Minorities and Modernity: A Sociolinguistic Ethnography*, London: Longman.

1999b “Alternative ideologies of la francophonie,” *Journal of Sociolinguistics* 3(3): 336-359.

2003 “Globalization, the new economy, and the commodification of language and identity,” *Journal of Sociolinguistics* 7(4): 473-492.

Hochschild, Arlie R.

1983 *The Managed Heart: Commercialization of Human Feeling*,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Kachru, Braj B.

1986 *The Alchemy of English: The Spread, Functions and Models of Non-Native Englishes*, Oxford, U.K.: Pergamon.

Kang, Jiyeon and Nancy Abelmann

2011 “The domestication of South Korean pre-college study abroad (PSA) in the first decade of the millennium,” *Journal of Korean Studies* 16(1): 89-118.

Kang, Yoonhee

2012a “Singlish or globish: Multiple language ideologies and global identities among Korean educational migrants in Singapore,” *Journal of Sociolinguistics* 16(2): 165-183.

2012b “Transnational motherhood in the making of global kids,” *Living Intersections: Transnational Migrant Identifications in Asia*, eds by Pluss, C. and Chan, K-B., pp. 149-166. Dodrecht: Springer.

Forthcoming, “Going global in comfort: South Korean education exodus in Singapore,” *South Korea’s Education Exodus: The Life and Times of Early Study Abroad*, eds by Lo, A., Ablemann, N., Kwon, S-A., and Okazaki, S. Seattle, WA: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Kim, Jeehun

2010 “‘Downed’ and stuck in Singapore: Lower/middle class South Korean wild geese(kirogi) children in public school,” *Research in Sociology of Education* 17: 271-311.

Kim, Samuel S.

2000 “Korea and globalization (*segryehwa*): A framework for analysis,” *Korea’s Globalization*, edited by Kim, S. pp. 1-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Krashen, Stephen.

1982 *Principles and Practice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London: Prentice-Hall International.

Park, Joseph S-Y. and Sohee Bae

2009 “Language ideologies in educational migration: Korean jogi yuhak families in Singapore,” *Linguistics and Education* 20(4): 366-367.

Forthcoming, “School choice and the meaning of “success” among ESA families in Singapore,” *South Korea’s Education Exodus: The Life and Times of Early Study Abroad*, eds by Lo, A., Ablemann, N., Kwon, S-A., and Okazaki, S. Seattle, WA: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Park, Joseph S-Y. and Adrienne Lo

- 2012 “Transnational South Korea as a site for a sociolinguistics of globalization; Markets, timescales, neoliberalism,” *Journal of Sociolinguistics* 16(2): 147-164.

Park, So Jin and Ablemann, Nancy

- 2004 “Class and cosmopolitan striving: Mothers’ management of English education in South Korea,” *Anthropological Quarterly* 77: 645-672.

Reay, Diane

- 2000 “A useful extension of Bourdieu’s conceptual framework?: emotional capital as a way of understanding mothers’ involvement in their children’s education?” *The Sociological Review* 48(4): 568-585.

Schieffelin, Bambi, Katherine Woolard, and Paul Kroskrity(eds.).

- 1998 *Language Ideologies: Practice and Theo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Shim, Doobo. and Joseph S.-Y. Park

- 2008 “The language politics of ‘English fever’ in South Korea.” *Korea Journal* 48(2): 136-159.

Song, Juyoung

- 2010 “Language ideology and identity in transnational space: Globalization, migration and bilingualism among Korean families in the USA,” *International Journal of Bilingual Education and Bilingualism* 13(1): 23-42.

Waters, Johanna L

- 2005 “Transnational family strategies and education in the contemporary Chinese diaspora,” *Global Networks* 5(4): 359- 377.
- 2006 “Geographies of cultural capital: Educ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and family strategies between Hong Kong and Canada,”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y*

31(2): 179-192.

Wee, Lionel

2006 “The semiotics of language ideologies in Singapore,” *Journal of Sociolinguistics* 10(3): 344-361.

Zembylas, Michalinos

2007 “Emotional capital and education: theoretical insights from Bourdieu,”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55(4): 443-463.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2012, “초중고 유학생 출국 현황.”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534

Channel News Asia, “More Koreans enrolling in schools in Singapore.”
2008년 2월 11일자.

The Straits Times, “The Plight of the wild geese families.” 2009년 3월
17일자.

〈Key concepts〉: language resource, language competence, educational migration,
language ideology, emotional capital, Singapore

Reconstituting Language Resources and Competencies:

South Korean pre-college students and their accompanying
families in Singapore

Kang, Yoonhee*

This paper examines a case study of South Korean educational migrants who have moved to Singapore for their children's pre-college education. It discusses how these migrants redefine and reconstitute the ideas and values of language resources and competencies as mediated by their multiple and situational language ideologies. In particular, this study illustrates how these Korean educational migrants in Singapore view Mandarin, English and Singlish as having multiple values according to different situational contexts. Chinese or English does not exist as an "abstract" language. Rather these language resources are cultural products, of which meanings and values are constantly negotiated and constituted through Korean migrants' lived experiences of specific transnational contexts.

* Associate Professor, Dept. of Anthrop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Korean educational migrants, on the other hand, redefine and reconstitute language competencies that they aspire to acquire through their Singapore experiences. Based on the spatio-temporal specificity of their migration to Singapore, the Korean migrants tend to reconfigure their desired language competence as being potential and timely and spatially limited. At the same time, as a type of spatio-temporally specific competence, the Korean migrants emphasize emotional capital, including a sense of self-discipline and regulations as well as self-confidence as significant personal dispositions required to go further to a “larger society.” Therefore, this study demonstrates how the meanings and values of language resources and competencies are constantly reconstructed and negotiated through educational migrants’ shifting language ideologies, as embedded in specific spatio-temporal trajectories of the educational migrants.